



2020년 10월 11일(제1003호) 연중 제28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사랑으로의 초대”

반복되는 하루, 반복되는 한 주, 반복되는 계절.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다 보면 우리의 삶 안에서 변하는 것은 나이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쳇바퀴 돌듯 특별한 것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 무의미해 보입니다. 이런 반복되는 우리 삶의 무의미함은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느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잊어버리게 만들고, 지금 우리의 앞길만 바라보기도 벅차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오늘 복음은 아들의 혼인 잔치를 연 임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서는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누구랑 결혼하는지는 말하지 않고 오직 임금이 원하는 혼인 잔치의 모습이 무엇인지, 누가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참석해야 하는지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초점은 임금이 혼인 잔치를 벌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임금이 혼인 잔치에 누가 오기를 원했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참석하기를 바랐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역시 이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그 혼인 잔치에 참석할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안에서 그 자격을 갖추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반복되는

전력을 통해 우리가 늘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십니다. 반복되는 성탄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혼인 잔치가 어디인지 가르쳐 주시며, 매일 들려주시는 복음과 독서를 통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예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십니다.

반복되는 모든 것들은 무료함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 그 반복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억시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은 하느님께서 마련해주시는 기회이며, 그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혼인 잔치의 참석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기쁨과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혼인 잔치의 초대장을 보내주신 하느님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 혼인 잔치에 초대를 널리 전해야 합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말입니다. 언제 가게 될지 모르는 혼인 잔치를 위해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민기(요이킴) 신부
충장(31사단) 성당 주임

- 제 1 독 시** 이사 25,6-10ㄱ
- 회 답 송** ◎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 2 독 시** 필리 4,12-14.19-20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 복 음** 마태 22,1-14
- 영 성 제 송**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농교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명: 농교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洪教萬 Francis Xavier)

신분: 양반, 학자, 순교자

활동연도: 1738-1801년

홍교만(洪教萬)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한양 출신으로, 훗날 경기도 포천으로 이주해 살았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지내고 있었으며, 그도 높은 벼슬을 지낸 만형과 함께 일찍부터 학문에 힘써 진사가 되었다. 1801년에 순교한 홍인 레오는 그의 아들이며, 같은 해에 순교한 정철상 가롤로는 그의 사위이다.

포천으로 이주해 사는 동안, 홍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양근에 사는 고종사촌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집을 드나들다가 천주교 신앙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신앙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먼저 천주교에 입교한 아들 홍인에게서 교리에 대해 자세히 들은 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찾던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는 실천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1794년 딸 주 야고보 신부가 조선에 입국하자, 홍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주 신부를 찾아가 세례를 받고 미사에 참석하였다. 그런 다음 비신자 친구들과의 교제를 끊고, 자신의 학식을 이용하여 더 깊이 교리를 연구하였다. 또 글을 잘 알지 못하는 신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가르치기도 하였으며, 냉담자를 회두시키거나 교리를 알고자 찾아오는 이들을 권면하는 데 열중하였다. 포천 지역에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은 그의 이러한 열성 때문이었다.

1801년의 신유박해가 일어나자마자, 홍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사돈 정약중 아우구스티노의 책 상자를 자신의 집에 숨겨 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 신자가 이 상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다가 박해자들에게 발각되었고, 이내 그의 이름도 박해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아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피신하였다. 그러나 스스로 오래 피할 수 없음을 알고는 집으로 돌아왔고, 오래지 아니하여 포졸들에게 체포되었다.

2월 14일, 홍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곧장 의금부로 압송되어 문초와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위협에도 전혀 굴하지 않았으며, 박해자들 앞에서 끊임없이 ‘천주교 교리가 진리’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실제로 박해자들이 오히려 그의 용감한 태도에 놀랄 정도였다. “하느님은 천지의 큰 부모가 되시니, 어찌 큰 부모를 섬기지 않겠습니까? 또 큰 부모를 섬기는 천주교를 감히 사악한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천하의 진리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사악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홍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끊임없이 배교를 강요당하였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자 박해자들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동료들과 함께 서소문 밖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01년 4월 8일(음력 2월 26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63세였다.

복 음 록 상

- 배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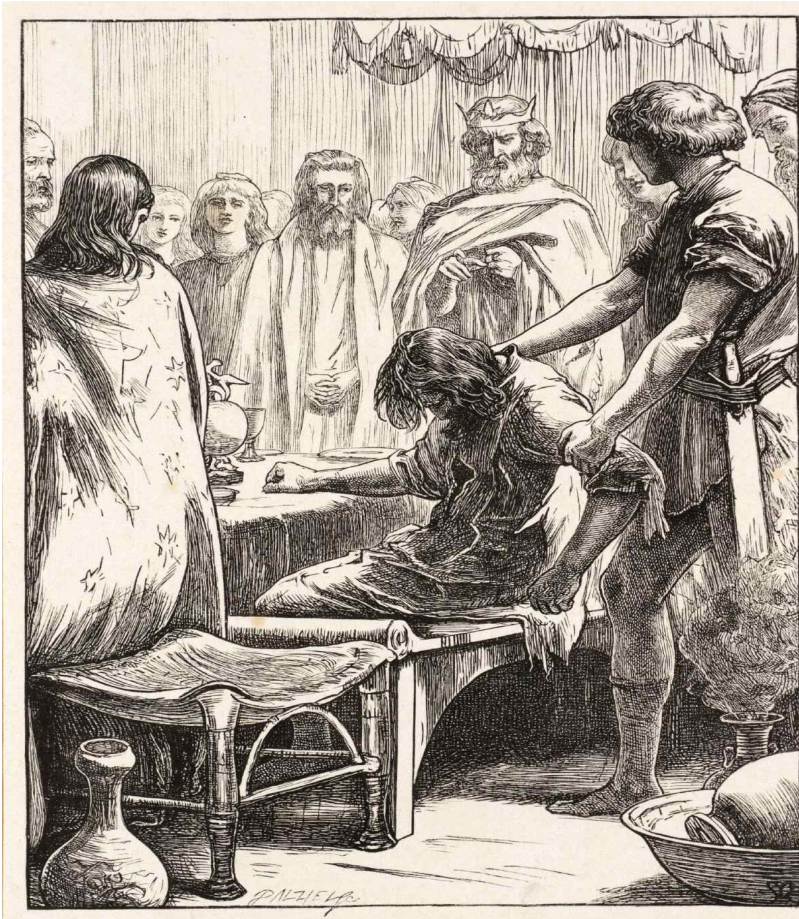
갈 곳 없는 우리

<p>설 곳이 없는 아이들, 갈 곳이 없는 우리의 아이들이 있습니다.</p>	<p>설 곳이 없는 어른들, 맘 붙일 곳이 없는 우리의 어른들이 있습니다.</p>
<p>설 곳이 없는 청년들, 일할 곳이 없는 우리의 청년들이 있습니다.</p>	<p>그런 나를 님께서 초대하십니다.</p>



상화이야기

혼인잔치의 비유



이 그림은 오늘 복음 말씀을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가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칫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존 에비렛 밀러, 1864년 제작
140 × 108mm
테이트 미술관
「예수님의 비유」 책자 삽화 중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언중 제28주일: 무월대 김상현 신부

◆ 교구장 통장

- 주교회의 2020년 추계 정기총회
때·곳: 10월 12일(월)~16일(금), CBCK

◆ 국장회의

때·곳: 10월 13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군중교구 ‘잇숨 생기대’ 단원모집

대상: 성가를 통한 군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정기연습: 매주 화 20:00, 용산 군중교구청

문의: 홍민영 비비안나 010-3837-503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후를 따라” -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요한 21,19)